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2026. 11. 17.(화) 19:30 배포 2026. 11. 17.(화)

한·호주, 유엔기후변화 총회에서 탈탄소 협력 모범사례 제시… 파리협정 이행 선도

- 김성환 장관, 호주 크리스 보웬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탈탄소화 협력 양해각서 체결·공동성명 발표 및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공동제안서 제출
- (양해각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 및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전기화·청정에너지·산업 탈탄소화 협력 강화
- (공동성명) 녹색산업 협력, 트랙 1.5 대화 등 한-호주 간 협력 방향 제시
- (공동제안서) 파리협정 이행 가속화를 위한 양자협력 사례를 국제사회에 공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1월 17일 오후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UNFCCC COP31)가 열리고 있는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협상의장국인 호주 기후변화에너지환경수자원부(장관 크리스 보웬)와 '대한민국-호주 공동 탈탄소화 경로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대한민국-호주 양자 탈탄소화 경로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한다.

아울러 이날 양국은 파리협정 이행 양자협력의 모범사례(모델)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에 공동제안서(Joint Submission)를 제출한다.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계기로 발표된 이번 한·호주 탈탄소 협력은 양국의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과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전기화·청정에너지 전환 및 산업 탈탄소화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를 통해 파리협정 이행을 가속화할 수 있는 탈탄소 양자협력의 모범사례를 국제사회에 제시한다.

우리나라와 호주는 오랜 기간 에너지·자원 분야에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주요 협력국으로, 2024년 체결한 '녹색경제 동반자협정(GEPACE)'을 바탕으로 청정에너지 산업과 공급망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특히 이번 협력은 파리협정 발효 10주년을 맞아 선언과 약속을 실질적인 이행으로 전환하려는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기조에 부응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우리나라는 협상의장국인 호주와의 협력을 통해 양국의 기후목표를 구체적인 산업·에너지 정책과 기술·투자 협력으로 연결하고 이를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기간에 맞춰 발표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실질적인 기후행동을 촉진한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와 청정에너지 기술역량을 가진 우리나라와 에너지·자원 및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보유한 호주는 상호보완적 협력 가능성이 높다. 양국은 이러한 강점을 바탕으로 산업 탈탄소화의 실질적 해법을 함께 모색하고, 청정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안보, 경제성장을 동시에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번 협력은 △탈탄소화 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통한 협력 기반 마련, △양국 장관 공동성명을 통한 구체적인 협력 방향 제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공동제안서 제출을 통한 파리협정 이행 양자협력의 모범사례 국제사회와 공유 등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첫째, 양국은 '공동 탈탄소화 경로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기후·에너지 및 산업 탈탄소화 분야의 협력체계를 구체화한다.

양국은 △전기화 및 전력망 확보, △기술 협력·역량 강화, △청정에너지·산업 탈탄소화 투자여건 조성, △기후적응·회복력 강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지원, △시민사회·청년 참여 확대 등 6개 분야의 협력을 추진한다.

기존 장관급 협의체를 활용하고 산업계·연구기관 등의 참여를 확대하여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함께 높여 나갈 계획이다.

둘째, 양국 장관은 이날 '대한민국-호주 양자 탈탄소화 경로에 관한 공동성명(Joint Statement)'을 발표하고, 양해각서에 기반한 구체적인 협력 방향과 후속 과제를 제시한다.

공동성명에는 녹색산업 이니셔티브 개발, 에너지 전환을 위한 청정에너지 공급망 및 수소 인증 연구, 정부·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1.5트랙 대화 등 주요 협력과제가 담겼다. 양국은 이러한 협력을 통해 산업 탈탄소화와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기술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셋째, 양국은 파리협정 이행을 가속화하기 위한 탈탄소 양자협력의 모범사례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이를 다자 협상 무대로 확장하기 위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에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 촉진을 위한 양자협력에 관한 공동제안서(Joint Submission)'를 공식 제출한다.

공동제안서에는 양국의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전기화 및 전력망 확충, 탈탄소화 기술, 청정에너지 및 산업 탈탄소화 투자 등 주요 협력 방향이 담겼다. 특히 국가별 감축목표를 구체적인 정책·기술·투자 협력으로 연결하는 양자협력의 사례를 제시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및 투명성 관련 경험을 공유하여 제2차 전지구적 이행점검(GST2)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한편, 전날(11월 16일) 호주 홍보관에서는 한-호주 청정에너지 협력 관련 부대행사가 개최되어 청정연료 분야의 산업협력 가능성 등이 논의되었다.

아울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한-호주 양해각서 서명식과 연계하여 안탈리아 현지 한국홍보관에서 두 차례의 한-호주 공동 부대행사를 연다.

이날 열리는 지구적 기후시민 토론회(포럼)에서는 청년·시민사회·기후취약국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통한 포용적 기후행동의 중요성을 국제사회와 공유한다.

또한, 내일(11월 18일) 개최되는 산업 탈탄소화 부대행사에서는 저탄소 철강 등 산업 부문의 탈탄소화 및 기술·투자 협력 가능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파리협정 발효 10주년을 맞은 지금, 기후위기 대응은 더 이상 선언에 머물러서는 안되며 산업·에너지 현장의 실질적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협력은 우리나라와 호주가 각자의 강점을 결합하여 산업 탈탄소화와 에너지 안보, 경제성장을 함께 추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한국형 녹색대전환(K-GX)을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지구적 녹색대전환으로 확장하고, 호주와 함께 파리협정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국제협력을 선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한-호주 공동 탈탄소화 경로에 관한 양해각서 개요.
2. 한-호주 공동성명서 전문.
3. 한-호주 공동제안서 전문. 끝.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국제협력팀	책임자	과 장	최한창 (044-201-6600)
		담당자	사무관	안호정 (044-201-660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 1 **한-호주 공동 탈탄소화 경로에 관한 양해각서 개요**

□ 추진배경

○ 2050 탄소중립 달성 및 에너지 안보 강화라는 공동 목표 하, 에너지 전환과 경제·산업의 탈탄소화를 위한 한-호주 협력 확대 추진

○ 한-호주 기후·에너지 녹색경제 파트너십(GEPACE)을 기반으로 양국의 NDC 이행 지원 및 실질적 탈탄소화 협력 기반 강화

□ 주요내용

○ **(협력 목적)** 양국 간 기후·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를 통해 탄소중립 전환 촉진 및 국제적 탈탄소화 노력에 기여

○ **(협력 분야)** 전기화·전력망 강화, 기술협력·역량 강화, 청정에너지 투자, 기후적응·회복력 강화, NDC 이행 및 이해관계자 참여 등

○ **(추진 체계)** ▲기존 장관급 협의체(KAJMM) 및 기후·에너지 장관급·고위급 회의 활용, ▲산업계·연구기관 등 협력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 내 기후·에너지 협력 확대

□ 의미 및 기대효과

○ **(협력 구체화)** 기존 GEPACE의 포괄적 협력 목표를 전기화·전력망·산업 탈탄소화 등 구체적 협력 분야로 발전

○ **(기술·투자 협력)** 양국의 정책·기술 역량 및 공공·민간 협력을 통해 청정에너지·산업 탈탄소화 분야의 투자 여건 조성

○ **(국제협력 확대)** 양국의 탈탄소화 협력 경험을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대해 역내 탈탄소화 노력에 기여

붙임 2 **한-호주 공동성명서 전문(국영문)**

호주-대한민국 양자 탈탄소화 경로에 관한 공동 성명

호주와 대한민국은 오랜 기간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유지해 온 포괄적·전략적 파트너입니다. 양국은 기후· 에너지 협력을 한층 더 심화하여, 서로의 넷제로 달성을 지원하는 동시에 양국의 번영과 에너지 안보를 증진 또는 강화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호주의 기후변화에너지환경수자원부(DCCEEW)와 대한민국의 기후에너지환경부(MCEE)가 공동 탈탄소화 로드맵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음을 발표합니다. 본 양해각서는 양국이 탈탄소화를 달성하는 동시에 경제적 번영을 촉진하고 에너지 안보를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양자 협력을 촉진할 것입니다.

본 양해각서와 더불어, 양국은 협력을 촉진하고 경제를 발전시키는 실질적인 프로젝트에 협력할 의향이 있음을 발표합니다. 여기에는 호주와 한국의 청정 에너지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녹색 산업 이니셔티브 개발, 수소 인증 연구,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청정 에너지 공급망 연구, 1.5 트랙 대화 등이 포함됩니다.

우리는 전 세계 기후 의욕 수준을 강화하는 데 있어 COP31 협상 의장국으로서 호주의 역할을 높이 평가합니다. 호주와 한국은 파리협정에 따라 기후 목표 달성과 1.5도 목표 달성을 실현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이행을 가속화해야 할 중대한 시점이라는 데 동의합니다. 기존의 노력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국가들이 협력할 때 더 강해진다고 믿습니다. 이를 위해 양국은 양자 협력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공동 제안서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에 제출했습니다.

한국과 호주는 1.5도 경로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 시스템에서 화석 연료로부터의 전환을 공정하고 질서정연하며 형평성 있게 가속화하고, 이 중대한 10년 동안 조치를 가속화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정합니다.

호주와 한국은 청정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겠다는 공동의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국은 넷제로로의 전환 과정 전반에 걸쳐 서로의 에너지 안보를 지원함과 동시에, 양국 경제를 더욱 긴밀히 연계하여 청정 에너지 산업을 성장시키고 탈탄소화 기회를 확대해 나가기로 약속합니다.

Australia-Republic of Korea (ROK) Joint Statement on a Bilateral Decarbonisation Pathway

17 November 2026 [under embargo]

The Hon Chris Bowen MP, Minister for Climate Change and Energy

The Hon Kim Sungwhan, Minister for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Australia and the Republic of Korea (ROK) are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 who share a long-standing and mutually beneficial relationship. We want to further deepen our climate and energy cooperation to support one another to achieve net zero while increasing or strengthening our prosperity and energy security.

Today, we are pleased to announce Australia's Department of Climate Change, Energy, the Environment and Water (DCCEEW) and the ROK's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MCEE) have signed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on a Joint Decarbonisation Pathway. This MoU will promote real-world bilateral cooperation that will help our countries decarbonise, while driving economic prosperity and supporting energy security.

To accompany this MoU, we are pleased to announce our countries' intention to cooperate on practical projects that drive cooperation and build our economies, including developing a green industry initiative to support Australian and Korean clean energy projects, a hydrogen certification study, a clean energy supply chain study to support energy transition and a 1.5 track dialogue.

We recognise Australia's role as COP31 President of Negotiations in bolstering global climate ambition. Australia and the ROK agree this is a critical moment to strengthen cooperation and propel implementation to achieve our climate targets and keep 1.5 within reach in line with the Paris Agreement. The status quo will not do.

We believe that countries are stronger when they work together. To this end, we have made a joint submission to the UNFCCC on how bilateral cooperation can support implementation of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s).

The ROK and Australia acknowledge the importance of accelerating the transition away from fossil fuels in energy systems in a just, orderly and equitable manner, accelerating action in this critical decade, so as to achieve net-zero greenhouse gas emissions by 2050 consistent with 1.5°C aligned pathways.

Australia and the ROK have a shared ambition to accelerate the clean energy transition. We are committed to supporting each other's energy security throughout the transition to net zero while drawing our economies closer together to grow our clean energy industries and advance opportunities for decarbonisation.

붙임 3 **한-호주 공동제안서 전문(국영문)**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의 공동 제출서: NDC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양자 협력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이하 "양 당사국")는 파리협정 및 각국의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한다.

2025년 12월, 대한민국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53~61% 감축하는 2035 NDC를 제출했다. 2025년 9월, 호주는 2005년 대비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62~70% 감축하는 2035 NDC를 제출했다. 양 당사국은 효과적인 기후 행동의 핵심 축인 NDC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한다.

2050년 넷제로라는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양 당사국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다. 호주와 대한민국은 이 중대한 시점을 인식하고, 양국이 기후변화에 대응함과 동시에 상호 에너지 안보와 경제적 번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기후·에너지 협력관계의 의욕 수준을 높이고 있다. 양 당사국은 청정에너지 및 녹색 상품 무역 확대의 필요성을 인식하며, 에너지 전환으로 양국 경제를 더욱 긴밀히 연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양 당사국은 전기화 및 전력망, 탈탄소화 기술, 청정에너지 및 산업 탈탄소화 사업에 대한 투자, NDC 이행, 포용적 이해관계자 참여에 관한 실질적인 협력을 약속한다. 이러한 실질적인 협력은 서로의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고 각국의 NDC에 명시된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이를 통해 양 당사국은 양자 협력이 전세계적인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보다 광범위한 국제협력과 공동행동의 실질적이고 확산가능한 모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양 당사국은 NDC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따른 의무와 파리협정의 목표 달성을 위한 정치적 의지와 확고한 약속을 보여주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식한다. 또한, 충분한 연구를 바탕으로 수립되고, 투자 가능성과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는 양질의 NDC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한다. 양 당사국은 NDC 수립, 투명성 및 격년투명성보고서(BTR) 관련 역량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양자 간 NDC 협력을 구축하고 지식 교류를 확대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양 당사국은 효과적인 NDC 이행을 위한 보다 광범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양자 협력을 통해 얻은 관련 경험과 교훈을 공유하고자 한다.

2023년 실시된 전지구적 이행점검(GST)은 각국이 그간의 진전을 확인하고,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을 부각하는 중요한 계기였다. 파리협정 당사국들은 2035 NDC를 통해 GST의 행동 촉구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했다. 호주와 대한민국은 2023년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실시된 GST의 결과를 토대로 각국의 NDC 이행을 통해 경제 전반의 탈탄소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하며, 제2차 GST에도 기여하고자 한다.

양 당사국은 1.5도 목표에 부합하는 경로에 따라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 시스템에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을 공정하고 질서 정연하며 형평성 있게 가속화하고, 이 중대한 10년 동안 조치를 가속화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한다.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는 에너지 안보를 유지하면서 탈탄소화를 추진하고,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기회를 활용하며, 녹색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 양 당사국은 본 파트너십으로 각국의 NDC 이행을 가속화할 뿐만 아니라 양자 협력이 전세계적인 기후 위기 대응에 있어 광범위한 국제협력과 공동 행동에 기여함을 보여주고자 한다.

JOINT SUBMISSION FROM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AUSTRALIA: BILATERAL COOPERATION TO SUPPORT NDC IMPLEMENTATIO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Australia (hereinafter Parties) make the following submission in relation to the Paris Agreement and respective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s):

In December 2025, the Republic of Korea submitted their 2035 NDC, a 53-61% reduction in net GHG emissions below 2018 levels. In September 2025, Australia submitted their 2035 NDC, a 62-70% reduction in net GHG emissions below 2005 levels. Parties reinforce a steadfast commitment to their NDCs, the essential pillar of effective climate action.

There has never been a more important time for Parties to cooperate to work towards the shared goal of net-zero by 2050. Australia and the Republic of Korea are elevating the ambition of their climate and energy relationship in recognition of this crucial moment and to demonstrate how two countries can act on climate change while supporting one another's energy security and economic prosperity. Parties are working to draw their economies closer together through the energy transition, acknowledging the need to increase clean energy and green commodity trade. More specifically, Parties commit to practical cooperation on electrification and power grids, decarbonisation technologies, investment in clean energy and industrial decarbonisation projects, NDC implementation and inclusive stakeholder engagement. Practical cooperation of this nature will be prioritised to support one another's energy transitions and to implement the targets set out in the respective NDCs. In doing so, the Parties seek to demonstrate how bilateral cooperation can serve as a practical and replicable model for broader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collective action in addressing the global climate crisis.

Parties acknowledge the vital role NDCs play in demonstrating political will and firm commitment to meeting the obligations under the UNFCCC and the goals of the Paris Agreement. Parties acknowledge the importance of high-quality, sufficiently researched, investable and policy-supported NDCs. Parties will endeavor to establish bilateral NDC cooperation and knowledge exchange to further strengthen capabilities in NDC development, transparency and Biennial Transparency Reporting. The Parties also intend to share relevant experiences and lessons learned from their cooperation to support wider international efforts towards effective NDC implementation.

The 2023 Global Stocktake (GST) was a critical moment for nations to acknowledge progress made and highlight where more work is required to keep 1.5 within reach. Parties to the Paris Agreement endeavored to respond to the GST calls for action in their 2035 NDCs. Australia and the Republic of Korea commit to working together to accelerate the decarbonisation of their economies, through implementation of their respective NDCs, building on the outcomes of the COP28 2023 GST and contributing to the second GST.

Parties acknowledge the importance of accelerating the transition away from fossil fuels in energy systems in a just, orderly and equitable manner, accelerating action in this critical decade, so as to achieve net-zero greenhouse gas emissions by 2050 consistent with 1.5°C aligned pathways.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Australia commit to working together to decarbonise whilst maintaining energy security, capitalising on the economic opportunities of the transition and growing our green economies. Through this partnership, the Parties aim not only to accelerate the implementation of their respective NDCs, but also to demonstrate how bilateral cooperation can contribute to broader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collective action in addressing the global climate crisis.